

4 기획

문해력 저하, 디지털 리터러시에도 영향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고도희 기자 kdhstory@khu.ac.kr

코로나19 유행과 디지털 시대의 도래, 읽기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한 대학생의 문해력·작문력·구사력(이하 문해력) 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서비스의 대중화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강조되는 상황이지만 그에 앞서 기초 읽기와 관련된 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읽기 교육 부족으로 인한 청년세대 문해력 저하 '디지털 리터러시' 에도 영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연구 보고서 'PISA 21세기 독자: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문맹률은 1% 정도지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역량을 측정하는 문항의 정답률은 25.6%로 OECD 평균(47.4%) 이하였다. 또한 '202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도 국어 실력은 하락세를 보인다. 청년세대의 문해력 저하의 주원인으로 교육부족이 지적되는 상황이다. 우리신문은 교수 5인과 학생 6인을 만나 대학 교육 현장에서의 강의와 과제, 시험 출제 등에서 느끼는 문해력 이야기를 들어봤다.

교수들은 대체로 청년세대의 문해력 저하 현상이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고봉준(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글의 논지가 무엇이고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대부분의 학생이 그걸 알려달라고 교수에게 요구한다”며 “그 내용을 알려주면 학생들은 이를 이해하고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 내용을 필기하고 곧장 암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이 입시 위주의 공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며 “입시에서는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정답이 가장 중요하고, 정답 이외의 부분은 시간을 잡아먹는 쓸모없는 부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코로나 시기를 원인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고인환(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정확히 어떤 시점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큰 것 같다”며 “코로나를 거

치며 중등교육에서 온라인 교육, 유튜브 등 영상 매체를 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대학에 들어왔을 때 문해력이 떨어지고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글의 요지, 문맥 자체에 대한 이해도는 있는데 이를 자신과 연관 지어 생각하지 못한다”며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긴밀한 창조적 읽기가 되지 않는 실태를 꼬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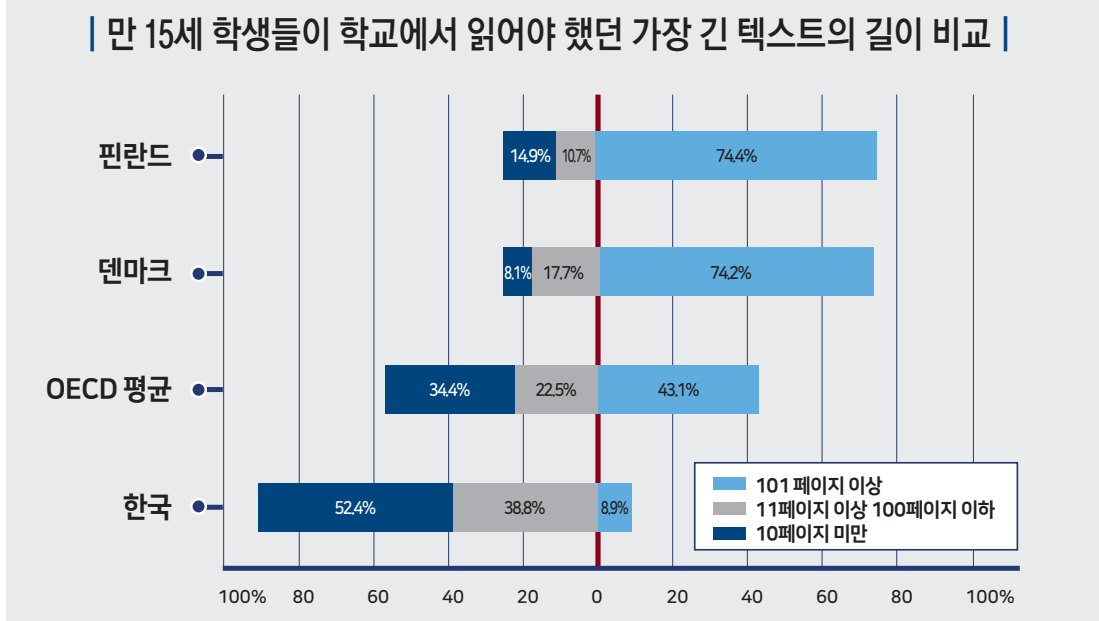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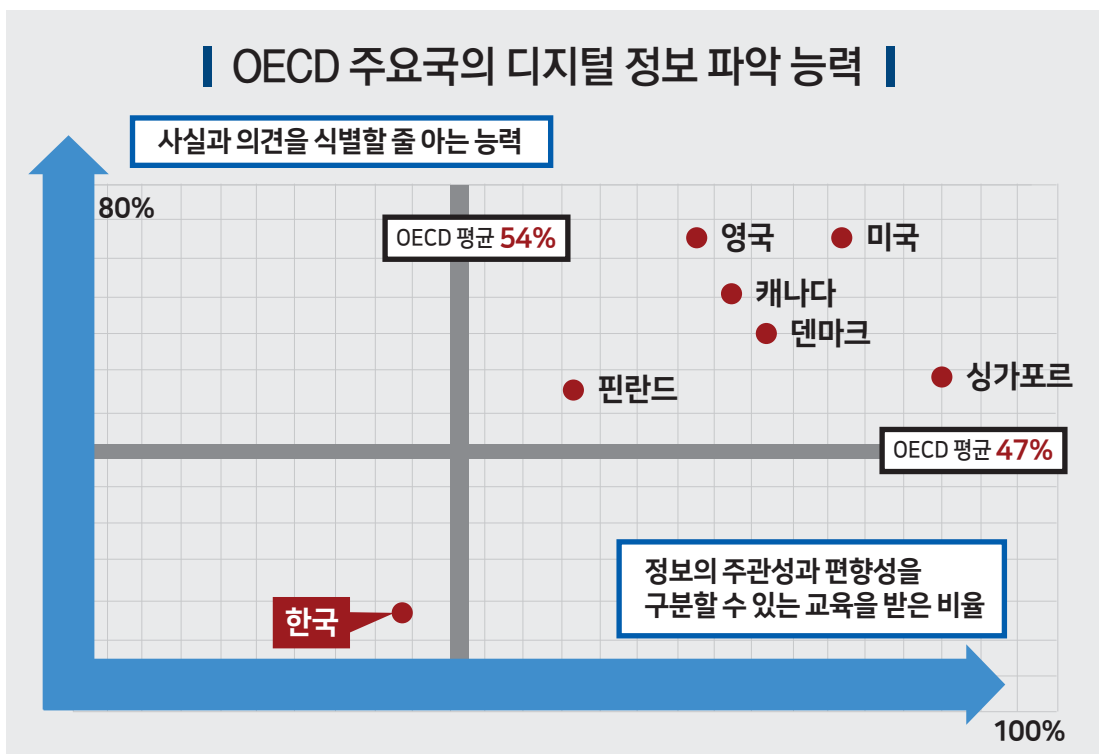
교수진, 대학교육 현장에서 '충분히 알아들었나' 확신없는 경험 늘어나

이기형(미디어학) 교수는 “난해한 기사나 칼럼, 논문과 비평론 일부를 읽히면 학생들이 충분히 알아들었나 하는 확신이 없는 경험이 늘어났다”며 “특히 시험에서 서술형 답안을 채점할 때 많이 느낀다”고 답했다. 또한 “가르쳤던 내용을 충분히 소화해서 자기 나름의 관점을 풀어내고 의미 부여가 촘촘한 그런 글이 예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줄었다”며 “의미가 담고 설득력 있으면서 정돈된 논의를 개진한 글을 찾기 굉장히 힘들다”고 덧붙였다.

학생들도 인쇄 매체를 읽을 때 어려움을 겪거나 과제 작성 시 자료 인용, 그리고 생각을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구한영(국어국문학 2021) 씨는 “책이나 신문 등 인쇄된 글을 읽을 때 어려움을 느낀다”며 “과제를 작성할 때 키워드만 검색하는 것에 익숙해 개진하려는 주장과 다른 글을 참고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답했다. 한편 김형구(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2018) 씨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과연 문해력을 필요로 하는지 답부터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기도 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필수 글쓰기 교과 교양 과목으로 '성찰과 표현(성찰적 글쓰기)', '주제 연구(학술적 글쓰기)'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 및 글쓰기 훈련이 교양 교육에서 더 나아가 전공을 포함한 모든 교육 과정에 접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교수는 “커리큘럼의 일부를 '사고 훈련'에 초점을 맞춰 실험적인 과목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자유롭게 텍스트를 읽고 토론하고 글로 써보는 교육



우리나라 학생의 경우, '디지털 정보 파악 능력'과 '학교에서 읽은 글 중 가장 긴 글' 모두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출처=OECD <PISA 21세기 독자: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 보고서)

이 필요하다”며 “학교에서 오히려 시험적이더라도 문해력을 늘릴 수 있고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실험적인 과목들을 몇 개 운영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텍스트를 봤을 때 단순히 수동적인 읽기가 아니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질 문해 텍스트에 직접 관여하는 능동적인 읽기를 요구하는 대학 교육의 특수성에도 글쓰기 교육이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도.

학생들 역시 문해력 문제 극복 방안으로 교수들과 비슷한 의견을 냈다. 학생들은 신문이나 책처럼 인쇄 매체를 활용한 독서 및 작문 수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문해력 증진을 위한 특강 개설과 같이 학교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전했다. 김성현(정보디스플레이학 2021) 씨는

“같은 글을 함께 읽는 경험과 글을 쓰고, 타인과 공유하는 경험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고 훈련 및 글쓰기 교육 전공 교육에서도 접목돼야

대학 교육에서 문해력 수준을 높이라는 시도는 곧 현대사회의 필수 소양인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에도 도움이 된다. 정보에 대한 선택 능력을 뜻하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문해력’은 상호보완적인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고봉준 교수는 “문해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영상을 사용하는 것과 문해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영상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PISA 21세기 독자: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 보

고서를 다시 살펴보면 ‘학교에서 읽어야 할 글의 길이’가 한국은 10페이지 미만이 대부분이다. 이는 OECD 76개국 중 67위에 머무를 정도로 중등교육에서 읽기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OECD 보고서를 분석한 김진해(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를 극복하는 해법은 영상이 아닌 종이책을 읽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대 흐름에 발맞춰 대학교육은 사건, 현장, 상징, 텍스트를 정확히 읽고 의미와 해석을 구성하는 능력, 새로운 기술과 매체를 유효하게 사용할 문화적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문해력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증진하기 위해 전공교육에서의 획기적인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